



감악산 출렁다리

농치지 말아야 할 파주 관광 명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파주 하면 떠오르는 ‘DMZ 평화관광’부터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있는 ‘통일동산관광특구’, 마음이 풍성해지는 ‘파주출판도시’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출렁다리’까지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가득한 곳이다. 수도권 관광 1번지이자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파주를 방문한다면 농치지 말고 기뻐야 할 파주 관광의 명소들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대표, 파주 DMZ 평화관광

우리나라 전체 안보 관광객의 80%가 파주의 DMZ 평화 관광지를 찾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판문점을 비롯한 파주의 DMZ 관광지를 뽑고 있으며 실제로 연간 70만 명이 넘게 방문하고 있다.

현재 파주 임진각에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가 올해 4월 개장하고 운영 중이다. 임진각 관광지와 민통선 넘어 캠프그리브스 간의 임진강 850m를 26개의 곤돌라로 연결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현재 상부 정류장 전담대와 평화의 등대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파주 DMZ 평화관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감동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최충환 파주시장

즐길 거리가 있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난해 4월 관광특구로 지정된 파주시 통일동산 일대에는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 프리미엄아울렛 등의 다채로운 관광지가 있다.

파주시는 현재 통일동산 내에 파주 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고 있으며 CJ ENM과 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월드 조성도 준비 중이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파주출판단지

파주출판도시의 파주시 문발동 일대 국가문화산업 단지로 출판기획, 편집에서부터 인쇄, 물류, 유통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해마다 파주 북소리 축제(9월), 파주 어린이 책 잔치(5월) 등 책 관련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어 행사 기간에 방문한다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파주 출렁다리

자연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물빛이 아름다운 마장호수와 산빛이 좋은 감악산 출렁다리를 추천한다.

산과 호수를 끼고 있어 물빛과 낙조의 모습이 아름다운 마장호수에는 파주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흔들다리가 220m 길이로 설치돼 있다. 최고 50m 높이로 마장호수 물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마장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날 수 있다.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한반도 생태평화센터 조성’, ‘DMZ 평화의 길 2단계 조성’ 등 신규 관광자원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온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도권의 관광 1번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⑦



장단콩
삼백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주장단콩삼백
파주장단콩 · 파주개성인삼 · 한수위파주쌀